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



▶ 7회 예고
카피다르마는 왕자 수시마를 이발한다. 수시마는 첫째왕비에게 다르마의 인품을 이야기한다. 첫째왕비는 빈두사라왕에게 다르마를 추천한다. 마침내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을 만난다. 왕의 눈에 든 다르마는 왕비가 되어 별궁에서 산다.

다르마 이발사…마침내 가위 잡다

빵갈로바뜨사는 열다섯 번째 왕비가 머무는 별궁으로 갔다. 서둘러 잰걸음으로 걸어간 탓에 숨이 찼다. 평소에는 호흡하듯 천천히 걷곤 했던 그였으므로 드문 일이었다. 별궁 정원지기 궁녀가 빵갈로바뜨사를 보고는 합장했다. 정원지기 궁녀는 막내왕비가 좋아하는 꽃을 구해서 심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시간이 남으면 궁중정원으로 나가 다른 궁녀들과 함께 호미를 들고 잡초 뽑기 울력을 했다.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못했다. 정원지기 궁녀가 말했다.

"왕비님은 안 계십니다."

"대왕님을 뵈러 갔소?"

"아닙니다. 지금 후원에 계십니다."

"후원에서 누구를 만나고 계시오?"

"혼자 계십니다."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봐야겠소."

정원지기 궁녀가 빵갈로바뜨사 앞으로 나서며 말렸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왕비님을 꼭 봬야 하니 그렇소."

"구루시여. 용서하십시오."

정원지기 궁녀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왕자들을 가르치는 빵갈로바뜨사의 발걸음을 막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잠시후 빵갈로바뜨사는 자신이 다르마의 일로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호흡을 조절하며 평상심을 되찾았다. 입안이 곧 평소처럼 촉촉해졌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 입안의 침도 바짝 말랐던 것이다. 정원지기 궁녀가 말했다.

"왕비님은 종잡을 수 없답니다. 울다가 웃다가 느닷없이 화를 내니까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소."

"한때는 대왕님께서 자주 별궁에 오셨는데 요즘은 뜸합니다. 그래서 우리 궁녀들을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대왕님을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이지요."

열다섯 번째 왕비가 빈두사라왕을 독차지하겠다는 소유욕은 강하고 집요했다. 별궁에 궁녀가 배속되면 미모부터 따졌다. 잘생긴 데다 나이까지 젊으면 별궁에서 쫓아냈다. 도망치다가 병사에게 붙잡혀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궁녀도 있었다.

평상심을 되찾은 빵갈로바뜨사는 다음날 찾아올까 하고 망설였다. 마음이 괴롭고 심란한 왕비에게 다르마를 위해 부탁한들 들어줄 리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원지기 궁녀가 빵갈로바뜨사 앞을 휙 달려갔다. 왕비가 후원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정원지기 궁녀가 왕비에게 말했다.

"왕비님, 구루께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구루시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왕비님, 청이 하나 있어 왔사옵니다."

"혹시 다르마를 위한 일이 아니오?"

"맞습니다. 왕비님께서 다르마를 이발소로 보낸 까닭은 이발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데, 다르마는 비질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이발사가 왕비님의 지시를 잘못 이행하고 있으니 시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호호. 구루시여,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오?"

"급한 일은 아닐지 모르오나 대왕님께서 아시면 왕비님께 누가 될 줄 아옵니다."

"어째서 그렇소?"

"대왕님께서 다르마를 왕비로 점지한다는 허락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옵니다. 대왕님께서 다르마가 비질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실망할 것이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대왕님은 이발사를 불러 이발을 한다오. 이발소를 가지 않으니 언제 다르마를 보겠소?"

"다르마가 이발소에서 비질한다는 소문은 벌써 궁 안에 돌고 있사옵니다."

"그게 사실이오?"

왕비가 멈칫 놀라는 얼굴을 했다. 빵갈로바뜨사는 왕비가 놀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왕비님께서 이발사를 불러 시정한다면 아마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좋은 일이란 무엇이오?"

"대왕님을 위해 왕비님께서 다르마에게 이발을 배우게 했다고 하면 칭찬하시지 않겠사옵니까?"

"구루시여,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소?"

"아마도 대왕님께서 왕비님을 부르시거나 별궁으로 오실 것이옵니다."

왕비는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빈두사라왕이 곧 별궁에 오기라도 할 것처럼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다.

"지금 이발사를 불러 오너라."

정원지기 궁녀가 사라지고 나자 왕비가 빵갈로바뜨사에게 말했다.

"구루시여, 이발사를 불러 혼내줄 것이니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왕비님, 돌아가서 왕비님을 위해 기도하겠사옵니다."

빵갈로바뜨사는 자신의 염력이 통했다고 생각했다. 후원에서 오는 왕비를 보는 순간 짧고 강하게 '왕비님은 내 청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빵갈로바뜨사는 사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기도처인 반얀나무 고목 밑으로 걸어갔다. '빠빠왕비' 라고 비웃음을 받는 왕비이지만 다르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왕비가 자비심을 갖도록 기도했다. 바람이 불어오자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오랜만에 나타난 빵갈로바뜨사를 발견한 아지비까교 수행자들이 숲속에서 나와 반얀나무 주위로 둥글게 앉았다.

늙은 수행자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염주를 돌렸다. 그의 맨발바닥이 악어가죽 슬리퍼를 신은 것처럼 우둘투둘했다. 젊은 수행자 두 사람이 빵갈라바뜨사에게 화톳불 공양을 올렸다.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오더니 반얀나무 낙엽을 모아 얹고는 불을 지폈다. 푸른 연기가 풀풀 반얀나무를 감싸며 오르다가 허공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밤에 락슈미띳사가 다르마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 락슈미띳사는 활짝 웃고 있었다. 다르마에게 희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왕비님, 내일까지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이제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마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어?"

"낮에 정원지기 궁녀 언니가 이발사를 만났어요."

"왕비님이 밖에서 전단향나무 뿌리를 돌절구에 넣고 찧을 때 왔다가 갔어요."

다르마는 낮에 쇠공이로 절구질을 했다. 이발하는 손님이 없자 이발사 여인이 시켰다. 절구질은 도맡아서 하는 수드라 여인이 있었지만 다르마에게 심술을 부렸다. 전단향나무 뿌리를 가루로 만드는 데는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다. 돌절구 속에 마른 전단향나무 뿌리를 넣고 수백 번 쇠공이로 짓찧으면 가루가 되었다. 그 가루를 체에 넣고 거르면 전단향나무 향기가 나는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궁녀 언니가 이발사 언니에게 말했어요. 빠빠왕비님 지시라면서요. 이제부터는 왕비님에게 허드렛일을 시키지 말고 바로 이발 기술을 가르치라고요."

"그래?"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빠빠왕비님을 찾아가 항의했을 거예요. 빠빠왕비님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대왕님과 구루뿐일 테니까요."

"나 때문에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고생하시는구나."

락슈미띳사가 품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껍질이 노란 망고 두 개였다.

"궁녀 언니가 가져온 것을 제가 슬쩍 챙겼어요. 수드라 언니들은 바나나보다 망고를 좋아하거든요. 챙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져버리죠."

"락슈미띳사, 고마워. 우리 한 개씩 나눠먹자."

"아니예요. 저는 낮에 한 개 먹었어요."

달빛이 손바닥만 한 창으로 흘러들어와 락슈미띳사의 얼굴에 비쳤다. 귀엽고 똑똑한 수드라 소녀였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이 마주친 생쥐의 눈처럼 반짝거렸다. 락슈미띳사는 수드라 언니들이 찾을지 모른다며 서둘러 나갔다. 다르마는 누워서 가만히 합장했다. 날마다 고단하고 울적하지만 락슈미띳사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보름달이 창 너머에서 미소를 보내는 듯했다.

'아, 내가 빠딸리뿌뜨라 성에 오던 날 밤에도 보름달이 떴었지.'

다음날.

다르마는 이발소 수드라 여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락슈미띳사의 말대로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어져 있었다. 수드라 여인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락슈미띳사는 시치미를 뗀 채 수건을 빨고만 있었다. 이윽고 이발사 여인이 다르마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잡일은 하지 마세요. 이발 기술을 가르쳐주겠으니 내 옆에 있어야 해요."

"고마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발 기술을 배울 자격이 생긴 거죠."

이발사 여인의 말투도 어제와 달랐다. '빠빠왕비' 의 지시가 그녀에게 떨어졌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왕비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왕비가 왓찌국 시골마을을 지나다가 굶어 죽어가는 그녀 가족에게 망고와 빵을 던져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발사였던 그녀 아버지가 병사하자 가족이 구걸하며 떠돌다가 그런 모습으로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왕비는 그녀에게 암바니가마라고 불렀다. 암바는 망고, 니가마는 시골이라는 뜻이 있었다.

다르마는 암바니가마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다.

"가위질을 제법 하네요. 손재주를 타고 난 것 같아요."

"집에 손님들이 올 때 화병에 꽃꽂이 한 일밖에 없어요."

"손재주가 없으면 가르쳐줘도 절대로 가위질을 못하거든요."

그러나 암바니가마의 호의는 거기까지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 같은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다르마를 견제하는 눈빛이었다. 다르마는 그런 기색을 느끼고는 조심하곤 했다. 락슈미띳사는 암바니가마가 '빠빠왕비' 를 만났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전해주었다. 빈두사라왕의 머리를 만지고 온 암바니가마는 반드시 '빠빠왕비' 를 만났다. 왕비에게 왕의 근황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빈두사라왕은 이발할 때가 되면 암바니가마를 궁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그러니 암바니가마는 빈두사라왕의 동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았고, 그 첩보를 왕비에게 낱낱이 전해주었던 것이다. '빠빠왕비' 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왕이 다른 왕비들의 별궁에 드나든다는 소식이었다.

"왕비님, 오늘은 첫째왕비님의 아들인 수시마 왕자님을 보러 가셨답니다."

"수시마 얘기를 왜 꺼내는가!"

"왕비님도 왕자를 낳으시면 되지 않사옵니까?"

"수시마 말만 들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대왕님께서는 요즘 어느 별궁에 자주 드시는가?"

"왕자님을 가장 많이 출산한 왕비님 별궁인 것 같사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빠빠왕비' 의 불행은 왕자를 갖지 못한 데에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빠빠왕비' 가 왕자를 잉태하지 못하자 다른 왕비와 후궁들에게 발길을 돌려버렸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수십 명의 왕자가 필요했다.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하려면 정복한 소국들을 많은 왕자들이 다스려야 했으므로 그랬다. 빈두사라왕은 왕자들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왕자를 뽑아 자신을 대신하는 부왕(副王)으로 삼으려고 했다. 〈계속〉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